

'일가족 4명 실종' 연루 가능성 前 해태 야구선수 추적

화순서 실종자 휴대전화 감지 본격 조사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서울시 마포구 일가족 4명이 20여일째 실종된 사건과 관련, 광주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고 실종자 중 한 명의 휴대전화 화순 지역에서 감지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개요=전직 프로 야구선수 L(41)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김모씨(여·46)는 지난달 18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째(20), 셋째(15) 딸과 함께 있다가 실종됐다. 외출했던 큰딸(22)은 이날 자정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김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마포경찰은 김씨의 아파트에서 김씨의 휴대폰을 발견했으며, 실종 당일 밤 아파트 내 CCTV(폐쇄회로)에 40대 남성이 세 번에 걸쳐 대형 여행용 가방을 김씨 소유의 SM5 차량에 싣고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차량은 실종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한 남자가 김씨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황급히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상황=경찰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CCTV에 찍힌 40대 남성을 지목하고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했던 식당 종업원과 목격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CCTV 남성의 몸집·걸음걸이·옷차림새 등이 '전직 야구선수 L씨와 흡사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L씨는 실종된 김씨와 재혼설이 나올 만큼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일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실종된 셋째딸의 휴대전화 실종 다음날 새벽 5시 49분 화순군 남면에서 감지된 점에 주목, 용의자가 일가족을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에 착수했다. L씨는 화순지역을 자주 놀러와 이 일대 지역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 2월 김씨의 통장에서 1억7천여 만원이 인출된 점에 주목하고 정확한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일단 L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국금지했다.

화순경찰은 자체적으로 신고가 감지된 기지국 일대와 L씨의 지인들의 거주지 등을 수색했다. 경찰은 김씨 일가족이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나들목 부근에서 김씨의 승용차가 차량자

동 관측기에 감지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서부경찰은 L씨가 4년 전 동업자 조모씨 실종사건에 연루돼 내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씨는 지금까지 실종상태다.

◇풀리지 않는 의혹=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CCTV 속의 인물이 전직 야구선수 L씨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CCTV의 화질이 좋지않은 데다 옷차림새나 행동만으로 L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40대 용의자가 김씨의 차에 실었다는 여행가방의 크기는 온전한 성인이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는 크기였다는 것도 의혹 중 하나다. 김씨의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또한 발견된 양이 너무 적었다. 하지만 L씨가 지난달 18일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종사건에 깊이 연관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안현주·강필성 기자 ahj@kwangju.co.kr



광주향교 석전대제

광주향교(전교 정상운)는 지난 8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대성전(大成殿) 앞에서 '2008년(공기·孔紀 2559년) 춘기 석전대제(春期 釋奠大祭)'를 올렸다. 석전대제는 공자와 그의 제자 및 한국인 유학자를 기리는 의식으로 매년 봄과 가을(음력 2, 8월 초하루) 두 차례 봉행한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위험한 논·밭두렁 태우기 노인들 질식사·화상 잇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 사는 노인이 논·밭을 태우다 연기에 질식사해 숨지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낮 12시10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안동마을 뒷산에서 이 마을에 사는 이모(76)할머니가 밭두렁을 태우다 연기에 질식사해 숨졌다.

8일 오후 2시10분께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에서 이 마을에 사는 김모(73)할머니가 논두렁을 태우다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이날 오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한 밭두렁에서 짚을 태우던 김모(84)할머니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을 끄려다 부상을 당했다.

또 7일 오전 11시20분께에는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에서 이 마을에 사

는 이모(76) 할머니가 밭두렁에서 잡풀을 태우다 열풍과 손바닥, 발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실의에서 난 불은 풍향에 따라 순식간에 불길의 방향이 바뀌지만 노인들은 판단력이 흐려 주로 앞쪽 방향의 진화에만 열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 속에 갇혀 화를 입는다"며 "논·밭두렁이나 산에서 불이 날 경우 노인들은 혼자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일단 대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여건의 산불·들불이 발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선거 관련 글 블로그 게시 무죄" 판결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한 임모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작년 대선을 앞둔 9~11월 약 두 달에 걸쳐 자신이 2006년 8월부터 운영해오던 블로그 내 38개의 카테고리 중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에 글을 게시하면서 12번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원침 (7453) 김장동



폭설 피해 복구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 수사

나주 지역의 일부 농민들이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62)씨는 "2005년 폭설 당시 농민들이 피해규모를 부풀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받았다"고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금명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당시 보조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농민, 나주시 등을 상대로 고발내용의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방문교사 성추행 회사가 배상책임"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A, B양 자매 및 이들의 부모가 해당 교사 및 유령 방문학습지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 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제펜맨비뇨기과
www.gjpf.com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원통 (062) 233-5119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동천동 36-10

여자친구 집 절도 '못된 애인'

○광주서부경찰은 9일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김모(34·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B 빌라에 사는 여자친구 문모(여·34)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7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몰래 가져가는 등 시가 2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평소 출입문 키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김씨는 설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가 시골에 내려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최근 하던 성인오락실 영업이 잘 안된다고 생활비마저 떨어지자 뭉클 짓을 하게 됐다"고 진술.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탐문수사 끝에 김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부도... 구속... 출소... 사기 혐의 수배

■유력 용의자 L씨 누구

서울 일가족 4명 실종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L(41·광주시 서구)씨가 누구인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광주 일선 경찰과 KIA 타이거즈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후반 KIA의 전신인 해

태에 입단한 L씨는 2001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구단으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L씨는 선수 생활 중 골든글러브를 수차례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다.

이후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웨딩홀을 차린 L씨는 이듬해 부동산 사기 피해로 빚더미에 올랐다. 결국 L씨는 지난 2005년 2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기혐

의로 구속됐다가 2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출소 후 재기를 노리던 L씨는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현재 광주북부경찰과 서부경찰 등에 사기 등의 혐의로 모두 7건의 기소종지가 내려진 상태다. 이 과정에서 L씨는 동업 관계에 있던 광주 모 폭력조직원 조모씨 실종 사건에 연루돼 경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었다.

/이종형 기자 golee@

황산·장가제 名山紀行

2008년 4월 22일 ~ 5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장가제 1박 2일 2. 황산·장가제 2박 3일 3. 황산·장가제 3박 4일 4. 황산·장가제 4박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장가제 1박 2일 2. 황산·장가제 2박 3일 3. 황산·장가제 3박 4일 4. 황산·장가제 4박 5일
--	--

모두투어 광주/전남 북여행사 판매 문의전화 02-225-6070